

남도 술 명가의 혁신... 100년 기업 향한 제2 도약



인프라 주력... 위생 인증·장성 생산본부 개선
'부라더 소다' 시장 개척... 공격적 경영 이어가
대학가 등 다니며 '박나래 잎새주 소셜카' 화제
광주·전남 대학생 '잎새 봉사단' 지역 웃음꽃



보해양조 장성 생산본부 전경



보해양조 '젊은잎새봉사단'과 임직원들이 광주시 남구 진월동 복지시설인 '작은예수의 집'에서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해양조 제공〉

창립 67주년을 맞은 보해양조(주대표이사 임지선)가 100년 기업을 향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보해는 '혼술' 문화 확산과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감소에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며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보해양조는 지난 2015년 임지선 대표가 부임하면서 탄산주 '부라더 소다' 시리즈 등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했다. 67년 전통을 가진 호남대표 주류기업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과 젊은 소비자를 공략하는 등 새 시장 개척을 위해서다.

임지선대표는 "67년 보해양조가 100년 기업을 추구하며 지역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기업혁신을 통한 잃어버린 시장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류기업이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트렌드 한 주류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신제품 개발 등 소비자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 대표의 기업혁신은 지난해 '김영란 법 시행'과 장기적인 경기침체라는 암초를 만나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보해 가족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공격적인 경영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우선 대표 제품인 잎새주를 중심으로 잃어버린 광주·전남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탄산수 시장을 새롭게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라더 소다에 대한 마케팅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탈환을 노리고 있다.

특히 시장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와 함께 제품 품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장성 생산본부 설비 확충, 전 생산라인 HACCP 인증 등 투자와 인적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왔다.



임지선 보해양조 대표

특히 매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잎새주의 제품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성 노령산맥 암반수에 캐나다산 천연 메이플 시럽을 넣은 잎새주의 우수한 품질을 적극적으로 알려 입맛 까다로운 남도 소비자와 젊은 층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복안이다.

품질 개선과 함께 마케팅 강화에도 나선 보해양조는 '달달하게 흔들흔들 잎새 Chu'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흔들면 달달함이 살아나는 메이플 소주'라는 점을 부각해 잎새주의 신선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과 다양한 영업을 통해 시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보해양조는 지역 광고업계와 상생하기 위해 잎새주 모델인 걸스데이 해리를 광주로 초청해 새 캠페인 포스터 촬영을 진행했다.

영을 진행했다.

또한 잎새주 홍보대사인 목포 출신 개그우먼 박나래 씨와 함께하는 '잎새주 소셜드링크링카'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달달한 잎새주 한잔에 곁들여진 달달한 스토리'를 소비자와 나누는 행사로 박나래 씨가 직접 지역민들의 걱정거리를 들어주는 고민상담 시간과 흥겨운 댄스 배틀 등을 진행했다. 봄을 맞아 활기를 찾고 싶은 대학생,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보해는 올해 말까지 광주·전남 주요 상권에서 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지역민이 직접 동참하면서 지역기업 보해를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도 야심차게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보해양조 대표 제품인 잎새주 캠페인의 얼굴이 될 모델을 광주·전남지역에서 선발했다. '잎새주 달달퀸 모델 캐스팅'은 '대학내일'과 함께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대상으로 지역 모델을 선발하는 협업 프로젝트다. 잎새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소비자가 잎새주 캠페인의 얼굴이 되는 게 적합하다는 취지다.

최종 선발된 모델은 한 학기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받게 되며 오프라인 행사에 동참해 잎새주를 알리게 된다. 또한 최종 선발된 모델이 보해양조에 입사지원할 경우 가산점도 부여한다.

보해양조는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상생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와 지역 제품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기아차는 보해양조 임직원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기아차 광주공장 주변 식당을 이용할 때 잎새주를 적극적으로 마시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 '남과 함께'를 만들었다. 광주·목포·순천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사원 41명으로 구성된 '남과 함께'는 여성 특유의 친근함을 무기로 소비자에게 보해와 보해제품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로 11년째 활동 중인 보해양조 '젊은 잎새 봉사단'은 지금까지 누적인원 1200여 명이 동참했다. 광주·전남대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은 연탄배달, 배식봉사, 환경정화 활동 등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다양한 곳을 찾아가 값진 밑방울을 흘렸다. 보해양조는 이들 광주·전남의 내일을 책임질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보해양조는 급변하고 있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유시민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유 사외이사는 보근복지부 장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jtbc '셀전'에서 정치논객으로 활약하고 있다. 보해양조는 새로 선임된 유시민 사외이사가 회사 경영 전반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유 사외이사가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만큼 임·직원들과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자본력을 갖춘 수도권 주류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호남 주류시장. 지역 대표 주류업체로서 100년 기업을 추구하는 보해양조의 변화와 혁신의 발걸음이 올 한해 어떠한 결실을 맺을지 기대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세월호의 아픔, 대한민국의 아픔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도 시간도 쉬어가는
사람들의 고향! **신안**으로 오세요

신안군청 신안군청장 **장은석**
신안군수 신안군수 **박정수**
신안군의회 신안군의회장 **박인용**
신안군의회 신안군의회장 **박인용**
신안군의회 신안군의회장 **박인용**
신안군의회 신안군의회장 **박인용**

신안군의회 신안군의회장 **박인용**
신안군의회 신안군의회장 **박인용**
신안군의회 신안군의회장 **박인용**
신안군의회 신안군의회장 **박인용**
신안군의회 신안군의회장 **박인용**

신안군의회 신안군의회장 **박인용**
신안군의회 신안군의회장 **박인용**
신안군의회 신안군의회장 **박인용**
신안군의회 신안군의회장 **박인용**
신안군의회 신안군의회장 **박인용**

신안군의회 신안군의회장 **박인용**
신안군의회 신안군의회장 **박인용**
신안군의회 신안군의회장 **박인용**
신안군의회 신안군의회장 **박인용**
신안군의회 신안군의회장 **박인용**

